Industry News

Vol. 78

PUBLISHED PUBLISHED August 17, 2022

잡설 새로운 소식들 전력시장

잡설

Google ChromeOS Flex

구글 크롬OS인 Flex가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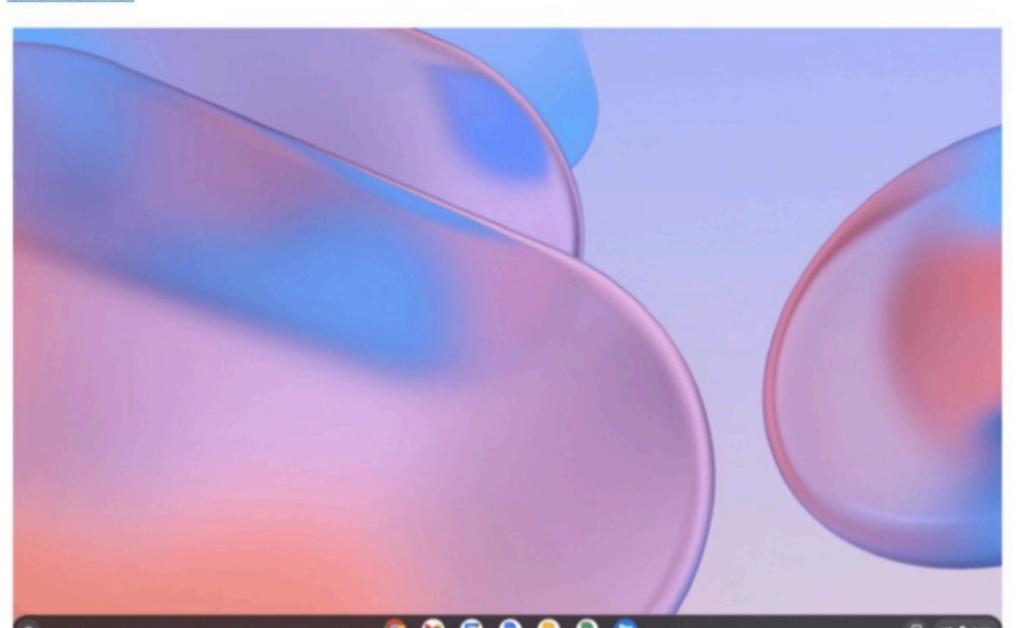
크롬북이 있었다가 사라져서(?)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단 저사양으로 크롬북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도 구형 노트북을 하나 구해서 한 번 깔아서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구글 서비스만 사용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용에서 불편을 겪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ChromeOS Flex



깃헙 레포 추천

최근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책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이북이나 Git-Hub의 Repository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이번에 소개 해 드릴 Repository의 주인공은 비전공자 출신으로 프리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된 분입니다.

Repository를 보시면 <u>Kaggle 관련 강의</u>가 있는데 진정 매우 유용합니다.

이런 노력을 아무런 댓가도 없이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GitHub - sw-song

아… 혹시 Kaagle competion에 도전하실 분 있으시면 따로 연락 한 번 주세요.

저는 Competition 3개 도전하여 2개는 완료, 1개는 하다가 중단 중입니다.

새로운 소식들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100% Renewable Energy Systems Research

<u>논문링크</u>

IEEE에 기념비적인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이 무려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100% Renewable Energy Systems Research" 입니다!

5개 그룹의 연구자들이 합동으로 그동안 수행한 연구를 집대성한 논문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인지만 이런 것을 번역하여 시사적과 각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항상 느끼는 것인지만 이런 것을 번역하여 시사점과 각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여 공유해주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주요 비판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irst 100% RE article first global transition first global transition study showing a cost-Greenpeace published study showing substantial cost of Lund (2004) who a first 100% RE report is the architect of conceptual framework neutral transition study in 199) and gained **EnergyPLAN** and of Power-to-X for fuels, reduction for a 100% first 100% RE for the entire energy broad attention with formed the research chemicals and sector reports in RE power sector in atudies by system in hourly resolution using the team with the most coupling to be applied hourly resolution for collaboration with DLR Serensen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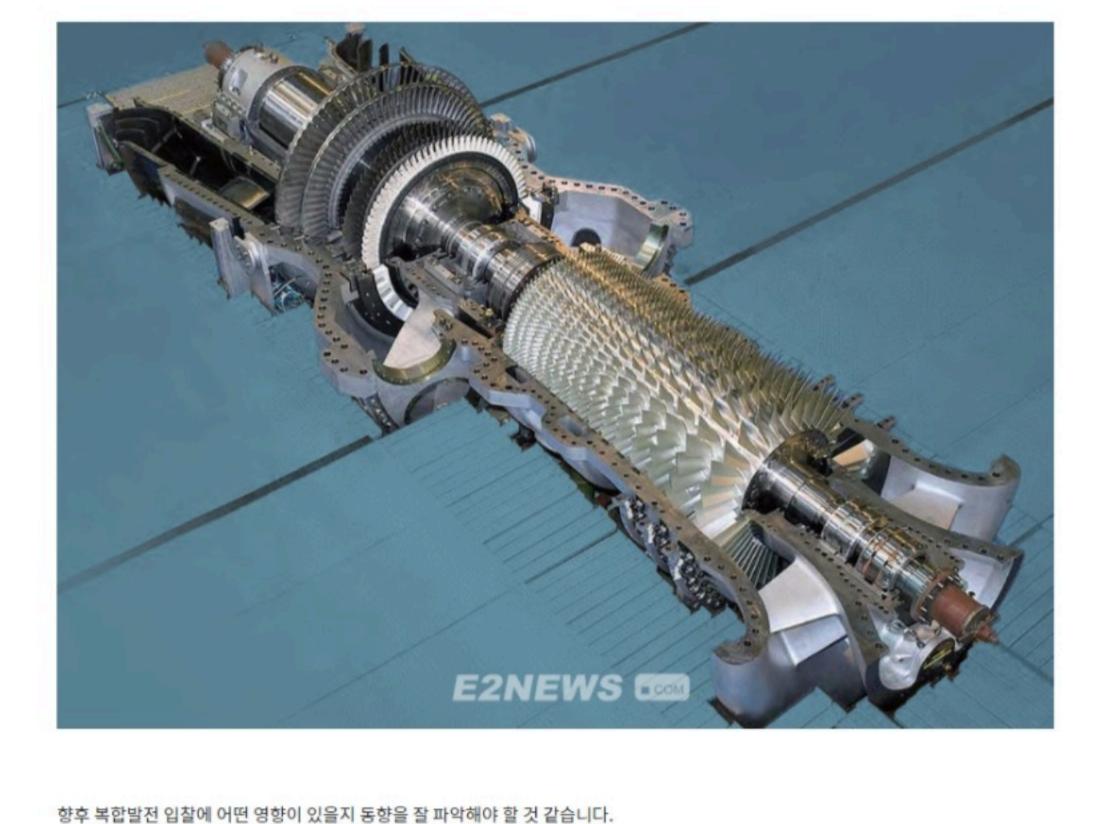
신설 火電, 묻지마 설비용량 '뻥튀기'

기사링크

복합발전 건설 시 발전사업 허가 용량보다 설비 용량을 키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선 SK가스가 올해 착공한 울산지피에스복합은 애초 970MW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한차례 용량변경을 통해 설비용량을 1122MW 로 키운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때 발전용량을 1234MW로 추가 증량했다. 또 발전사 측이 전력당국에 최근 정례 보고한 건설현황 시설용량은 기준온도 15℃ 기준(봄·가을에 해당) 1236MW에 달한다. 최초보다 설비용량을 300MW 가까이 키운 셈이다.

중부발전이 보령 6호기(석탄) 대체발전소로 건설 예정인 함안 천연가스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이 발전소의 사업허가용량은 500MW이지만, 한국종합기술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작업상 설비용량은 550MW로 적시돼 있다. 업계는 서부발전의 구미복합처럼 최종 설비용량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남동발전 삼천포천연가스(1120MW)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번 입찰 끝에 마곡열병합 건설업체 가닥

<u>기사링크</u>

여기 정말 기자들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건 마곡열병합을 대림(엇··· DL이라 해줘야 하나요?)과 컨소시엄으로 수의 계약 예정이라 합니다.

회사 이름 바뀌었다고 그렇게 크게 기사를 내던 3월 10일자 기사 양반들이 떡 하니 두산중공업이라 해 뒀습니다.

마곡열병합 건설업체 선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모두 6차례의 입찰에도 불구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지연 돼 왔다.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공사가 책정한 열병합발전소 투자비로는 타산을 맞추지 못할 것이란 건설업체의 판단이 큰 영 향을 끼쳤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데 수지타산을 잘 계산하여 입찰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력시장

Wordcloud for Enerbility

korns Dos



중앙급전발전기: 변동사항 없음
비중앙급전발전기: 경기 이천 관고 연료전지 신설 등[+29.7MW]
제주내연#1 연료원 변경(중유→바이오중유)

best regards, J.H

pjunho.ahn@doosan.com

Industry News? 매주 전력산업의 새로운 소식과 산업계 동향을 공유하는 뉴스레터입니다. Feedback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